



▲ 경북 문경지부 사무실 앞. 좌측부터 문경지부 권윤숙 간사, 윤희수 감사, 박종수 운영위원, 김성호 총무, 배종열 지부장, 충청가축약품 강원모 과장, 이한묵 부지부장

행정과의 유기적 관계로 회원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경북 문경지부

취재 : 정재은

경북 문경지부(배종열 지부장, 만 55세)는 행정과의 유기적 관계로 회원들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업규모 농가는 전부 회원으로서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합된 지부이다. 이처럼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나 사업을 협회를 통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

문경지부는 약품 공동구매 사업과 해양투기업체와 계약을 하여 공동으로 분뇨처리를 해나감으로써 생산비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문경시의 협조 아래 기자재, 톱밥, 종돈구입과 A등급 출현, 브랜드 문경약돌돼지 생산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매월 개최되는 월례회의 등을 통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토의를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으며, 꾸준히 돼지고기 무료시식회와 돼지고기 무료 제공을 통해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그밖에 आय회와 송년회를 문경시 공무원 및 축협 관계자들과 함께 개최함으로써 서로 친목을 쌓고 있다.

문경시 양돈산업의 중추역할을 하는 문경지부

90년대 초부터 문경지역 양돈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친목모임이 이루어져 오다가 조직 활성화와 적극적인 협회 참여를 위해 1999년 8월 문경지부가 설립되었다. 문경지부는 22명의 회원들이 4만5천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 문경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전업규모 농가는 전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문경지부는 배종열 지부장, 이한묵 부지부장, 김성호 총무, 윤희수·서동아 감사를 비롯해 영양, 질병, 번식, 시설, 분노, 교육 등 분야별 운영위원 6명 총 11명이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토의를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다.

또한 문경시 축산유통과 등의 행정기관에서는 농가가 양돈사업을 원활히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부를 통해서만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가 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문경지부는 지역 양돈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문경시의 협조 아래 양돈에 필요한 지원 이끌어내

회원농가가 기자재, 톱밥, 종돈을 구입할 때와 A등급으로 출하할 때, 브랜드 문경약돌돼지를 생산할 때 문경시의 협조 아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경시는 회원들이 열풍기, 냉방기, 고액분리기 등의 기자재를 구입할 때 비용의 30~50%를, 톱밥을 구입할 때 포당 1,000원(비용의 40% 정도)을, 종돈을 구입할 때 두당 1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A등



▲ 90년대 초부터 문경지역 양돈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친목모임이 이루어져 오다가 조직 활성화와 적극적인 협회 참여를 위해 1999년 8월 문경지부가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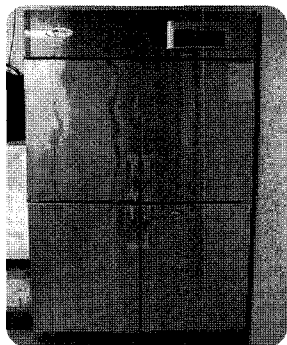
▲ 경북 문경지부 배종열 지부장



▲ 문경지부 김성호 총무(좌측)와 권윤숙 간사

급 출현시에는 두당 3,000원의 보조를 해주고 있다. 또한 문경약돌돼지 생산을 위한 약돌 재료비를 100% 전부 지원해 주고 있다. 한편 문경시의 지원을 받아 매년 1번씩 부부동반으로 유럽 등 양돈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있다.

아울러 2005년도에 문경시는 웰빙산업의 일



▲ 문경지부는 사무실에 약품 보관냉장고를 마련해 놓고 여러 종류의 약품을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환으로 양축농가에 톱밥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분뇨를 퇴비화하고 경종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산업으로 양돈산업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지부는 문경시의 지원을 이끌어내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되어 있는 만큼 좀 더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이 역시 지부에서 선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문경지부는 공동 구매사업과 분뇨처리로 회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지부를 활성화하고 있다.

공동 구매사업과 분뇨처리로 이익 제공 및 지부활성화

문경지부는 약품 공동구매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사무실에 약품 보관냉장고를 마련해 놓고 여러 종류의 약품을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지부 차원에서 선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품회사로부터 5%의 수수료를 받아 2%는 회원들에게 이익으로 되돌려 주고, 3%는 지부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사료업체로부터 지부 운영비로 톤당 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해양투기 업체와 계약을 하여 공동으로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문경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

고품질 브랜드돈육 문경약돌돼지 생산에 동참

박중수 회원을 주축으로 10농가가 지역 특산물인 약돌을 분쇄한 후 사료와 함께 급여하는 문경약돌돼지를 생산하고 있다. 젓돈에는 0.3%, 육돈에는 0.5%의 약돌이 첨가되며, 품질이 우수하다. 돼지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으며, 기름이 몸에 축적되지 않고, 쫄깃쫄깃하며, 맛이 좋다. 또한 높은 지급률로 양돈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03년에 개최된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올해 경북도로부터 농정부문 유통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매년 2번씩 문경약돌돼지 무료시식회를 개최하고, 축산물브랜드전시회에 참여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 문경지부는 2000년, 2001년, 2003년에 걸쳐 꾸준히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문경시 공무원을 비롯한 문경 시민들에게 진공 포장한 돼지고기 수출부위를 1인당 500g씩 총 7,000kg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수출부위 소비촉진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좌측과 가운데 사진은 2000년 11월 9일에 개최된 문경지부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우측 사진은 2003년 5월 14일에 개최된 문경지부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행사)

월례회의 및 시식회, 단합대회 등 꾸준히 전개

문경지부는 매월 두 번째 주 금요일에 월례회의를 열고 회원들에게 양돈현안이나 협회소식 등에 대해 전달해 주고 있다. 회의에서 건의된 회원들의 의견은 반영하여 집행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1년에 2~3번 정도는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부는 월 3만원의 회비와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2000년, 2001년, 2003년에 걸쳐 꾸준히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문경시 공무원을 비롯한 문경시민들에게 진공 포장한 돼지고기 수출부위를 1인당 500g씩 총 7,000kg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수출부위 소비촉진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밖에 회원들은 1년에 3번 정도 봄·가을에 야유회와 연말에 송년회를 문경시 축산유통과 공무원 및 축협 관계자들과 함께 개최함으로써 서로 친목을 쌓고 있다.

양돈농가에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각종 제도·사업을 개선해 나가야

배종열 지부장은 “회원농가에 실질적인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제도를 협회를 통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생산자단체가 힘을 키워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원조건을 완화해 양돈농가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 문경지부는 1년에 3번 정도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2003년 11월 12일에 개최된 한국엘랑고동물약품 예제길 상무의 'PMWS 증상 및 예방대책' 세미나)



▶ 문경지부 임원들과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지역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토의를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다.

윤희수 감사와 이한묵 부지부장은 “협회에서 사료분석실을 운영하며 영양 관련 기본지침을 만들어 놓고, 여러 사료업체의 사료성분을 분석하여 농가들이 품질과 가격이 보장된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희수 감사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브랜드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 단위 정도의 규모로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유통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문경지부 임원진들은 악취방지법, 축산업등록제가 양돈농가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되며, 인체에 무해한 냄새가 발생하는 축산업의 경우 악취방지법의 완화 적용이 필요하며,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등이 확실히 보장된 이후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돈**